

## 6 일본 CRDS, 주요국 외국 연구 인력 유치 정책 동향 보고서 발표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25년 세계 주요국·지역들의 외국 우수 연구인력 유치 정책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26.4)

\* 国際的な研究人材流動の関連政策を巡る主要国・地域の動向

- (개요) 보고서는 7개 국가·지역(미국, EU,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의 외국 우수 연구 인력 유치 정책·사업 동향을 정리해 제시
  - 국가별 연구 인력 정책은 대개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으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해 특히 '25년에 새로 도입된 정책 또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정리
- (배경) 과학기술·혁신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연구 인력의 이동성이 중요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외국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국제적인 연구 인력 이동이 중요하게 부상
    - ※ 국제적인 연구 인력 이동이란, 연구 인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해 일정 기간 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국경을 넘는 연구자의 이동과 국제 공동 연구는 지식의 교류와 축적을 촉진하고,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
- (주요국·지역 동향) '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전환으로 기존의 외국 연구 인력 수용이나 국제 연구 협력 틀이 변화
  - 이에 대응해 EU,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은 연구의 자유 보장과 우수 연구 인력 유치·정착을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

### 〈 주요국·지역별 국제 연구인력 정책 동향 〉

국가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부'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 조직 개편·축소, 비(非)국방 분야 예산 대폭 삭감, 특정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중단 등을 통해 기존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전환</li> <li>• 이 과정에서 과학연구의 공정성을 내세운 '골드 스탠다드 과학'*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ld Standard Science :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도입한 기준</li> </ul> </li> <li>• 미국 내 두뇌 유출과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제 논의로 확산</li> <li>• '26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25년 5월)에서는 비국방 예산을 20% 이상 줄이는 안이 제시되어,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등 주요 연구기관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의회 예산안('25년 12월)에서는 관련 예산을 '25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조정</li> </ul>



국가	주요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틀 하에서 유럽연구공간(ERA) 프로그램을 강화해 역내·파트너 국가 간 연구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li> <li>• ‘25년 5월 연구 인력 유치·정착 지원 패키지인 ‘Choose Europe for Science(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25~27년 5억 유로)를 발표</li> <li>• EU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비자 전략을 책정하고, ‘연구의 자유’를 명문화한 ERA 법안 검토를 진행 중</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년 연구계획법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커리어 개발 경로를 명확화하며 관련 기반을 강화 중</li> <li>• ‘25년 4월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Choose France for Science(과학을 위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2030 하에서 1억 유로를 투자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자나 엔지니어를 초빙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테크 아젠다’와 ‘교육·과학·연구 분야 국제화 전략’ 하에서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수 연구자를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추진</li> <li>• ‘25년 6월에 우수 연구자 유치·정착 및 연구 거점 강화를 도모하는 ‘1,000 Heads Plus 프로그램’(29년까지 6억 유로 투자 예정)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시행 기관인 훔볼트재단, 독일연구재단(DFG), 독일학술교류처(DAAD)는 우수 연구자 펠로우십, 장기 초빙 등 다양한 수단을 운용</li> </ul> </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탈퇴 이후 연구 인력 유출을 경험한 뒤 고급 인재 유치·정착과 해외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li> <li>• ‘25년 6월 발표한 영국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영국 유치·정착을 도모한다는 의지를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우수 연구자를 영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기금(5,400만 파운드)을 창설하고, 이를 전담하는 총리 직속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를 설립</li> <li>- 또한 12개 대학·연구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기관이 각 분야 선도 연구자를 모집하고 이주 비용과 연구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li>• 비자 제도 확대 및 우대 조치 강화 등도 실시</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년대부터 유학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08년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 이후에는 ‘초빙·귀국 지원’으로 정책 방침을 전환하면서 ‘25년까지 연구 인력의 본국 회귀가 이어지는 추세</li> <li>• ‘25년 8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를 개정해 유수 대학을 졸업한 STEM 분야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K비자’를 도입</li> <li>• 제15차 5개년 계획(‘26~30)에서도 과학기술 자립·자강, 인재 강국 전략, 대외 개방 등을 통해 국제 협력과 교류를 중시할 방침임을 표명</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력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젊은 연구자의 해외 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li> <li>• ‘25년 6월 국제 두뇌(인재) 순환을 표방한 ‘J-RISE Initiative’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통해 기존 펠로우십 제도와 첨단 국제 공동연구 추진사업(ASPIRE)을 강화하고, 국외 연구자 초빙·정착을 위한 ‘글로벌 우수 인재 초청 연구대학 강화 사업(EXPERT-J)’이나 딥테크 분야 국외 연구자 채용 기관을 지원하는 ‘글로벌·스타트업 인재 육성 (펠로우십) 프로그램(GP-ONE)’을 신설</li> </ul> </li> </ul>

- (결론) 종합하면 ‘25년 각국은 연구 환경의 경쟁력 강화 및 중요·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외국 연구 인력 확보 정책을 강화·가속화한 것으로 분석

출처 : 일본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2026.4.24.)

<https://www.jst.go.jp/crds/pdf/2025/RR/CRDS-FY2025-RR-11.pdf>